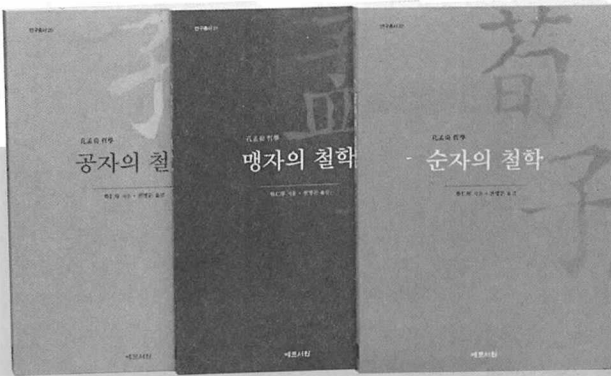


## 선진 유학사상의 현재적 가치 재조명해

채인후의 저서 《공맹순 철학》 번역 · 출간돼



채인후 지음 | 천병돈 옮김  
예문서원/A5신/238면 내외/8500원 내외

중국 현대신유학 학파의 제3세대에 속하는 채인후의 《공자의 철학》《맹자의 철학》《순자의 철학》(이상 천병돈, 예문서원)이 번역돼 나왔다. 본래 한 권으로 나온 원저 《공맹순 철학》을 세 권으로 나눴다. 유학이 동아시아 근대화 실패의 원흉으로 지목되거나 동아시아적 가치론의 대두에 따라 재발견되는 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요즘, 유학의 본질을 재평가하고 선진(先秦) 유가사상을 일목요연하게 개괄했다는 데 이 책의 가치가 있다.

### ‘문화의식’을 유학의 핵심으로 정의해

지은이는 유학을 ‘생명의 학문’으로 규정한다. 즉, 유학은 순수하고 높은 생명의 본질을 완성하며, 남을 포함해서 만물과 하나되는 실천의 학문이라는 것이다. 유학은 개인과 사회를 아우르는 사상이기도 하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인격·품위·사상·재능을, 사회적 측면에서는 윤리도덕·예악교화·공익사업을, 국가적 측면에서는 건국창제(建國創制)·관직분배, 백성을 보호하는 정치제도 등 세 측면을 모두 중시했다.

유학의 핵심이 ‘문화의식’이라고 강조한 것은 지은이의 독특한 관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집과 국가와 천하가 망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민족문화의 전통이 단절된 것을 참지 못해 그것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려는 인심(仁心)의 비장한 소원이 바로 문화의식이며, 만약 유학에서 문화의식을 분리해 버린다면 진정한 유학이라 할 수 없다고 지은이는 말한다.

《공자의 철학》은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의 일생을 살피고, 공자 사상의 형성과정과 공자의 ‘인·예·천·성·의·명’ 사상을 해설했다. 또한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제자들을 유파별로 나눠 설명한다. 이 책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공자의 문화적 공헌을 재조명한 것이다.

지은이에 따르면 먼저 공자는 구체적인 생명 속에서 질적·입체적·단계적으로 상승한 인격세계를 개척했다. 둘째, 공자는 계급과 종족 그리고 지역의 한계를 타파하고 천하의 공공성을 주창함으로써 보편적 인간이념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공자는 종족·계급·성별·빈부귀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교육받을 권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자사상을 계승해 심화·확대시킨 맹자는 전국시대의 혼란을 극복할

유학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이다. 동아시아 근대화의 걸림돌로 비난받는가 하면 동아시아적 가치의 핵심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이 책은 공자·맹자·순자 등 선진 유학의 3대 사상가들의 생애와 사상을 정리함으로써 유가사상의 현대적 의미를 재평가한다. 유학의 핵심을 문화의식으로 규정한 지은이의 안목이 돋보이는 저작이다.

도덕원리를 제정립한 혁명적 사상가였다. 《맹자의 철학》은 도덕철학에서 정치사상으로 유학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맹자의 생애와 사상을 집약한다. 맹자의 심성론, 수양론, 윤리관, 정치사상, 학술비평 등으로 나눠 서술하는데, 맹자철학의 본령은 정치사상에서 개화했다는 데 방점을 찍는다.

### 혼란기 극복할 도덕원리 확립한 맹자

맹자의 정치사상은 ‘민본정치’로 요약된다. 정치란 백성을 사랑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천하를 개인의 것으로 여기고 민심을 얻지 못하는 군주는 혁명으로 징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당화된다. 맹자의 민본사상은 도덕교화의 성격이 강하지만 객관적인 법제화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선진 유학자 가운데 순자만큼 오랫동안 오해받아온 사상가도 드물다. 순자에게 붙어 있는 ‘성악설’이란 딱지 때문이다. 《순자의 철학》은 이런 통념을 반박한다. 순자철학의 핵심은 성악이 아니라 ‘화성기위’(化性起僞)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악한 성을 인위적으로 통제해 선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화성기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순자는 ‘심’(心)으로 악한 성을 다스리는 것을 제시한다. 맹자가 심을 도덕심으로 파악한 것과는 달리 순자는 심을 ‘인지심’(仁智心), 즉 사물을 인지하는 주제로 파악했다. 다시 말해 인지심은 인지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으며 또한 분별해 의심하는 것을 해결할 수도 있다.

고전사상의 가치는 보편성과 시대정합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의 보편적 본질을 밝히면서도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유연하게 재창조·재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구 근대사상을 금과옥조로 숭배하는 경향이 팽배한 오늘날 동양사상의 원류를 이루는 공자·맹자·순자의 사상을 다시 읽고 거기서 창조성의 동력을 얻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박천홍 기자